송광사 근현대 100년의 흔적

송광사 조계총림 설립 50주년 기념
'송광사 근현대 자료 특별전'
송광사성보박물관 4월 30일~12월 29일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한국 근현대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시가 열린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 4월 30일(개막식 오후 4시)부터 12월 29일까지 조계총림 개산 50주년 기념 '송광사 근현대자료 특별전'을 개최한다.

일제강점기에서의 조계총림 모습을 비롯하여 송광사의 흥미로운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송광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송광사의 근현대 100년의 역사가 담긴 각종 유물과 자료 150여 점이 전시된다.

주요 유물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911년 친일 원종(圓宗)에 대항하여 설립한 임제종 종무원 관련 자료 1점과 1920년대 송광사와 송광사 지방학림에서 불렀던 '불교창가(佛敎唱歌)' 가사집인 〈가곡집(歌曲集)〉이 처음 공개된다. 1930년대 공연됐던 팔상극(八相劇) · 목련존자극(目蓮尊者劇)의 연극대본을 비롯하여 조계총림 개산 전후 송광사에 주석했던 석두 · 효봉 · 구산 스님 등의 유묵과 유품도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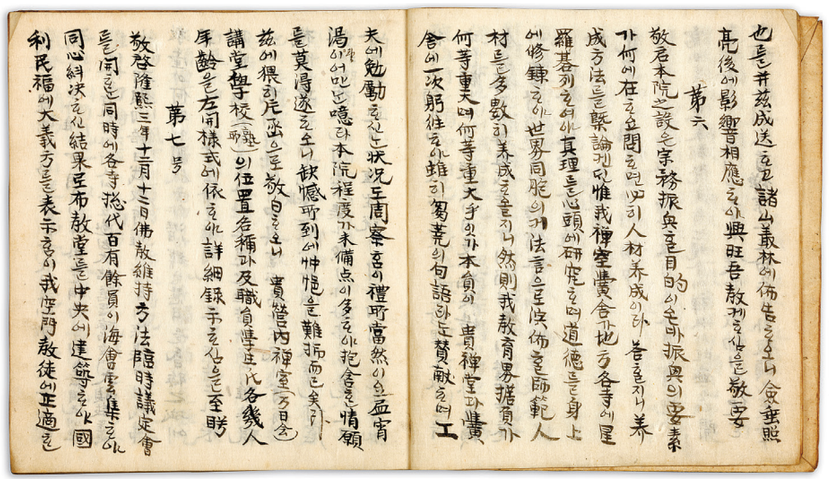
특히 1910년 경 원종과 임제종에서 송광사로 보낸 '공문(公文)' 필사본인 〈간독(簡牘)〉은 주목할 만한 유물이다. 〈간독〉에는 당시 언론에 소개된 기사가 아닌, 공문의 전문(全文)이 필사돼 있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첫 번째 공문은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태고 보우(太古 普雨 · ?~1550)스님 이하 역대 고승들의 문집 등을 수집하여 조사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1911년 공포한 '사찰령' 초안 등이 적혀 있다. 또한 원종이 1910년 이후 조선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병합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자 이에 대항하여 창립한 임제종 종무원에서 송광사로 발송한 공문도 함께 수록돼 있다. 책 표지와 첫 장에는 이 공문들을 필사한 '박상전(朴祥銓)'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박상전 스님은 1889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1905년 정용월(鄭龍月)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송광사에서 강원 등의 교육을 마치고, 1914년 중앙학림에 입학했다.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른 뒤, 1920년 12월 환속했다.

〈가곡집〉은 1920년 송광사 지방학림에서 간행한 창가 가사집으로 이남성(李南星)에 의해 편집 발간된 것이다. 〈가곡집〉에는 현대 찬불가의 효시가 되는 퇴경 권상로의 찬불가를 비롯하여 송광사에서 독자적으로 작사한 '16국사호가', '불조역대가', '보조국사기신가(普照國師忌辰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 유행했던 '학도가', '보조국사기신가(普照國師忌辰歌)',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거국가(去國歌)'는 '이향곡(離鄕曲)'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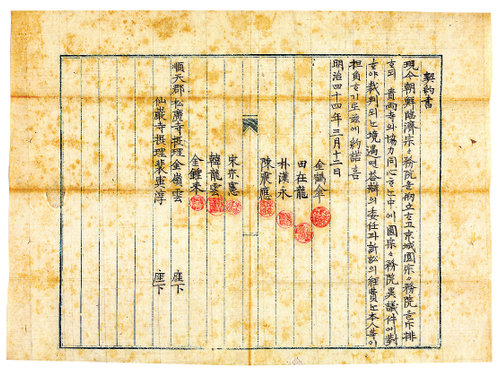
전시되는 송광사와 임제종 종무원간의 계약서는 일제가 세운 원종과 대립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대하여 김학산, 전재용, 박한영, 진진응, 송종헌, 한용운, 김종래 스님이 이에 필요한 대응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송광사에서 불교중앙학림으로 유학,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박상전(朴祥詮)' 스님 관련 자료도 눈길을 끈다. 061)755-0407(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실).

임제종 종무원 관련 자료
불교창가 가사집 〈가곡집〉 등
각종 유물 · 자료 150여 점 전시


1910년 경 원종과 임제종에서 송광사로 보낸 '공문(公文)' 필사본인 〈간독(簡牘)〉.


'불교창가' 가사집 〈가곡집〉.


임제종 종무원 설립계약서.

현대미술과 만난 오백나한의 미소

'창령사터 오백나한, 현대미술과 만난 미소' 展
국립춘천박물관 2019년 특별전 4월 16일~5월 26일

나한의 미소가 현대미술과 만났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강원 지역 현대작가들의 모임인 (사)아트인강원(이사장 김명숙)과 공동으로 2019년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현대미술과 만난 미소' 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춘천박물관의 브랜드 소장품인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모티브로 하여 강원도의 현대 작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지난해 8월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을 개최했던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인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전을 마련했다.

성상(聖像)임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웃고 사랑하고 슬퍼하며 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표정의 오백나한을 조명했던 국립춘천박물관은 또 한 번 오백나한을 테마에 올렸다. 지난 전시에서 나한을 '나한전' 밖으로 옮겨 대중과 가까운 나한을 좀 더 대중 가까이 옮겨왔다면 이번 전시는 중생의 얼굴을 닮은, 아니 중생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오백나한의 미소를 현대미술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간다. 26명의 (사)아트인강원 소속 작가들이 재해석한 나한의 미소를 볼 수 있다.


김명숙 作, Arhat in Soul Garden, Fabric Mixed Media, 2019.

또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14점의 특별한 작품이 전시된다. 국립춘천박물관이 개최한 '2018 어린이 그리기 대회'에서 상위 수상자 14명의 어린이가 그린 오백나한이다.

수상자들은 이번 특별전에 참여한 현대 작가들을 멘토로 하여 흥미로운 시각으로 나한을 그렸다.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참고 혹은 패러디를 통해 재미있고 기발한 발상으로 그려진 어린들의 나한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사)아트인강원은 지난 2012년에 창립되어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강원도 대표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작가(가나다순)는 강유림, 권대영, 김명숙, 김우범, 김운연, 김유나, 김윤선, 김진길, 박계숙, 박동진, 백은주, 빅터조, 심선남, 양순영, 이성준, 이용환, 이정여, 이종봉, 이희숙, 임근우, 전태원, 정두섭, 조동선, 최승선, 함섭, 홍귀희 이상 26명이다. (033)260-1500.

박재완 기자

불교영화 '내 마음의 고향' DVD 출시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영화 한 편이 DVD로 출시된다. 박영철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내 마음의 고향'이다. 영화는 지난 2016년 4월 명보아트시네마에서 개봉했다.

'내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에게 버려져 동자승이 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어려서 절에 버려진 천애고아 도성은 주지 스님의 보살핌으로 열두 살이 된다. 도성은 어느 날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온 서울의 젊은 미망인을 본 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진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도성을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

영화 '내 마음의 고향'은 리메이크 작품이다. 원작은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 '마음의 고향'이며, 함세덕 작가의 희곡 '동승'을 영화화했다. 원작은 해방 이후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완성도를 인정받아 이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선정한 한국영화 100선에 선정됐으며, 문화재청에 원본 필름이 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 신상옥 감독의 부인 최은희 배우의 20대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로도 유명하다.

DVD 제작사 미디어포유는 "상대적으로 가족들이 볼만한 불교영화가 적었고, 또 고전영화의 리메이크라는 점에서 '내 마음의 고향'은 분명 전국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의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며 출시의 취지를 밝혔다. (010)6247-5676(미디어포유 김병훈 대표).


영화 '내 마음의 고향'의 스틸컷.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숯침대
◆숯카우치
◆좌훈기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